

예비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의 관계

이소현* · 모아라** · 이은정*** · 안은정****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영유아교사들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 정도를 확인한 후,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71(SD=0.4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은 이해성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의사소통, 신뢰감, 만족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 영유아교사의 SNS 중독성의 전체 평균은 2.08(SD=0.51)이었으며, 하위요인의 평균은 몰입 및 내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부정정서의 회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만족도 전체에 대해서는 SNS 중독성 전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민감성만 SNS 중독성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예비 영유아교사, 대인관계 만족도, SNS 중독성

논문제출일: 2019. 5. 31

최종심사일: 2019. 6. 17

게재확정일: 2019. 6. 22

*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 경동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서울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Corresponding Author: Mo, A-Ra,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eonsung University, E-mail: moara0515@hanmail.net

I. 서론

소셜 어린왕자를 통해 생뎡쥐페리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했다. 누구와 관계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일 것이다. 시대가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되어도 인간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 미국에서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해고된 사람들의 해고 사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대인 관계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한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강조하는 최상의 복지는 최고의 연봉이 아니라 최고의 동료와 일하는 업무 환경이다(민승기, 2019). 또한, 국가의 경쟁력은 창의적 인재의 경쟁력이며, 기업 등 인재의 최종 수요자도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훌륭한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세정·고강호, 2014). 특히나, 최근 다국적 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정에서의 아동도 다른 아동에 비해 발달적, 교육적 측면의 어려움과 성장발달과정에서 필수적인 대인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은 중요하다(박경애, 2010). 이제 대인관계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있다.

영유아교육 현장에서도 교사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교사와 관계하는 대상들과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은 중요하면서 어려운 일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며, 이러한 교사효능감은 교사가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아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박은혜·배소연·이정옥·임승렬·조부경·조운주·조형숙·황보영란, 2002; 변은경·장경오, 2012). 반면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낮아지며(김혜리·어성연, 2017), 교사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적극성이 부족하고, 권위적이게 되어, 유아를 통제하는 부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Ashton, Webb, & Doda, 1983; Riordan & Costa, 1996).

이러한 관계 맺기의 형태는 직접적인 만남으로 형성되었던 전통적인 방법에서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직접적인 만남은 줄고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대변되는 온라인 만남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7년 드디어 90%를 넘어 2018년에는 91.5%를 기록하였는데(통계청, 2019), 연령별로는 10세에서 39세까지 99.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50대 98.7%, 60대도 82.5%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어 20대에서 50

대까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인터넷 이용자의 인스턴트메신저 이용이 95.9%, 이메일 이용이 62.1%, SNS 이용이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20대의 SNS 이용률은 91.2%로 매우 높다. SNS를 사용하는 이유 역시 ‘친교·교제를 위해서’가 81.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이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20~30대에 속하는 영유아교사들은 거의 모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SNS를 통한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SNS 이용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본인이 만드는 게시물의 이용이 일주일 평균 22 회였으며 이러한 SNS를 주 평균 53분 이용하는데, 주당 2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대답도 11.1%가 나왔다. 여기에는 메신저로 사용되는 SNS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용하는 SNS는 더 많은 횟수와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SNS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카페인 중독성(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독성)’, FTAD(페이스북, 트위터 중독성 장애 : Face book, Twitter Addiction Diaorder)라는 신종어가 생겨날 정도로 SNS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생겨났다(김소연·박미지·박부경, 2018; 민승기, 2019).

이러한 SNS중독 성향이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기표현을 잘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구혜자·이외선·홍민주·2016; 김소연, 2018; 전해성·홍구표, 2017; 홍구표·전해성, 2017). 여기서 대인관계문제는 대인간 대면하는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행동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역기능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을 말한다(Sullivan, 1956; leary, 1957). 또 다른 연구에서는 SNS 과다사용이 사용자에게 낮은 자존감과 낮은 삶의 만족감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Barker, 2009; 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반면, 김소연 등(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SNS 중독성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정적 상관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SNS 사용목적 중 정보수집을 위해 SNS를 이용하는 경우 대인관계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에 영유아들의 정서와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예비 영유아교사들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유아교사들이 SNS를 사용함에 있어 부정적인 작용을 알아보고 SNS 중독성 방지를 위한 영유아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예비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과에 재학중인 1, 2, 3, 4학년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배부에서부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였다. 배부한 설문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대학을 방문하거나 대학에서 우편으로 송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수거한 설문지는 총 198부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적합한 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1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설문 안내서와 동의서를 통해 연구 목적과 비밀 보장,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음 등 연구윤리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는 남학생이 18명(9.4%), 여학생이 173명(90.6%)였으며, 1학년 55명(28.8%), 2학년 59명(30.9%), 3학년 43명(22.5%), 4학년 34명(17.8%)였다. 전공은 아동학과 95명(49.7%), 유아교육과 62명(32.5%), 아동복지과 34명(17.8%)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N(%)
성	남	18(19.4)
	여	173(90.6)
학년	1학년	55(28.8)
	2학년	59(30.9)
	3학년	43(22.5)

	4학년	34(17.8)
전공	아동학과	95(49.7)
	유아교육과	62(32.5)
	아동복지과	34(17.8)

2. 연구도구

가.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Guemey(1994)의 관계 변화 척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문선모(1980)가 번안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5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4문항, 이해성 4문항이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대인관계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47이었다.

나. SNS 중독성

SNS 중독성 척도는 Andreassen 외(2014)의 베르겐 페이스북 중독성척도(BRAS)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NS 중독성 척도는 하위영역으로 몰입적 사용 6문항, 부정정서 회피용 5문항, 일상생활장애 유발 7문항, 금단현상 유발 5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사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SNS 중독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51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은 다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통해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

예비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두 변인에 대한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가. 대인관계 만족도

예비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대인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은 이해성의 평균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근감이 3.86(SD=0.48), 민감성 3.81(SD=0.67), 개방성 3.65(SD=0.67), 의사소통 3.61(SD=0.46), 신뢰감 3.59(SD=0.55), 만족감 3.55(SD=0.50)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71(SD=0.41)로 나타났다.

<표 2> 대인관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만족감	3.55	0.50
친근감	3.86	0.48
민감성	3.81	0.67
이해성	3.94	0.51
의사소통	3.61	0.46
개방성	3.65	0.67
신뢰감	3.59	0.55
대인관계 전체	3.71	0.41

나. SNS 중독성

예비 영유아교사의 SNS 중독성에 대한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몰입 및 내성에 대한 평균이 2.24(SD=0.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2.12(SD=0.56), 부정정서의 회피 2.10(SD=0.56)로 나타났으며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의 평균은 1.86(SD=0.48)으로 가장 낮았다. SNS 중독성 전체 평균은 2.08(SD=0.51)이었다.

<표 3> SNS 중독성

	평균	표준편차
몰입 및 내성	2.24	0.57
부정정서의 회피	2.10	0.56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2.12	0.56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1.86	0.48
SNS 중독성 전체	2.08	0.51

2.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의 상관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사용정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에 대해서 대인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민감성에 대해서만 SNS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만족도 전체에 대해서는 SNS 중독성 전체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만족도 전체의 경우 SNS 중독성 하위요인 중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중독성 전체의 경우 대인관계만족도의 하위요인 친근감, 이해성, 의사소통, 개방성, 신뢰감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의 경우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의 회피,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등 SNS 중독성에 대한 하위요인 전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근감, 이해성, 개방성, 신뢰감의 경우 SNS 중독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을 제외한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의 회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감과 민감성의 경우 SNS 중독성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민감성은 몰입적 사용, 부정정서 회피, 금단현상 유발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 영유아교사의 경우, 대인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이해성, 의사소통, 개방성, 신뢰감이 높을수록 SNS 중독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에 대한 상관

		대인관계 만족도								SNS 중독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대인 관계 만족도	1	1												
	2	.455**	1											
	3	.198**	.290**	1										
	4	.403**	.610**	.145*	1									
	5	.457**	.752**	.234**	.578**	1								
	6	.394**	.695**	.322**	.428**	.596**	1							
	7	.616**	.765**	.092	.671**	.747**	.657**	1						
	8	.658**	.880**	.487**	.700**	.810**	.793**	.852**	1					
SNS 중독성	9	.094	.175*	-.009	.159*	.208**	.195**	.162*	.183*	1				
	10	.036	.179*	-.078	.188**	.202**	.177*	.184*	.165*	.798**	1			
	11	.033	.133	.003	.130	.201**	.123	.127	.135	.861**	.758**	1		
	12	.092	.179*	-.021	.211**	.217**	.202**	.206**	.200**	.834**	.824**	.831**	1	
	13	.072	.180*	-.026	.183*	.227**	.187**	.183*	.184*	.942**	.911**	.924**	.931**	1

* $p < .05$, ** $p < .01$

1. 만족감
2. 친근감
3. 민감성
4. 이해성
5. 의사소통
6. 개방성
7. 신뢰감
8. 전체 대인관계만족도
9. 몰입 및 내성
10. 부정정서의 회피
11.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12.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13. SNS 중독성 전체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 영유아교사들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첫째, 예비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중독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을 하였다. 예비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은 이해성의 평균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근감이 3.86($SD=0.48$), 민감성 3.81($SD=0.67$), 개방성 3.65($SD=0.67$), 의사소통 3.61($SD=0.46$), 신뢰감 3.59($SD=0.55$), 만족감 3.55($SD=0.50$)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71($SD=0.41$)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 영유아교사의 SNS 중독성에 대한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몰입 및 내성에 대한 평균이 2.24($SD=0.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2.12($SD=0.56$), 부정정서의 회피 2.10($SD=0.56$)로 나타났고,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의 평균은 1.86($SD=0.48$)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SNS 의존도 전체 평균은 2.08($SD=0.51$)이었다. 즉, 예비영유아교사의 SNS 중독성에 대한 평균은 몰입 및 내성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SNS 중독성은 SNS 몰입하고 내성이 생기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예비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만족도 전체에 대해서 SNS 중독성 전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 영유아교사의 경우, 대인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이해성, 의사소통, 개방성, 신뢰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SNS 중독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SNS 중독성 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에서 SNS 사용목적 중 정보수집을 위해 SNS를 이용하는 경우 대인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하는 김소연 등(2018)의 연구와, 대학생의 정서적 신뢰도, 갈등대처방식의 유형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 본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혜원 등(2012)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대학생의 SNS 사용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에서, SNS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SNS 사용으로 인한 문제와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았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형성한다는 연구와 일맥상통 한다(Barker, 2009; 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예비 영유아교사의 대인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 일부는 SNS 사용 시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대인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이 SNS 중독성과의 상호작용이 다른 하위요인보다 정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연구는 SNS 중독 성향이 대인관계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구혜자 등, 2016; 김소연 등, 2018; 전해성·홍구표, 2017)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예비영유아교사는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해주며 소통하고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너그럽게 받아주는 이해성과, 친근감 또는 친밀감이라는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SNS를 통한 대인 접촉이 본질적인 대인관계의 질과 친밀감을 저하시키고 대인관계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 기능을 지지한다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오히려 의사소통과 친밀감과 긍정적인 상호작용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SNS 중독은 진지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높은 갈등해결 능력에는 미흡할 수 있다는 전해성, 홍구표(2017)의 연구결과와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예비 유아교사는 대학생의 상황으로 SNS를 다소 많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 동안 영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감이 있지 않으므로 SNS 중독이 삶이나 직업적인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교사와 다를 수도 있다. 손희주, 임나의, 오수현, 박혜빈, 김경민, 김지현, 정금비, 윤현서 그리고 이정화(201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성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상당 부분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들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장래에 영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예비 영유아교사들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SNS 또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영유아의 부모들과의 상호작용을 SNS로 자주 하게 되는 유아교육기관의 특성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영유아교사에게 SNS 중독성은 결국 대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대학 생활에서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직장생활을 갖는 직업인으로써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활 중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활용한 대인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과 SNS가 대인관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교육, SNS 중독성이 갖는 대인관계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써 인터넷을 활용한 SNS의 의미를 새롭게 분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NS의 사용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인관계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한정된 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SNS 사용정도에 대해서 하위요인에 따라 정적상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에 다양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양적, 질적 연구를 활용하여 심층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주제를 영유아교육과 관련된 학과와 이 외의 학과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영유아교육 관련 학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예비 영유아교사를 위한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구혜자·이외선·홍민주(2016). 대학생의 SNS중독 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4), 180-187.
- 김소연·박미지·박부경(2018). 대학생들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4), 454-462.
- 김혜리·어성연(2017). 유아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유아교사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1(6), 77-103.
- 김혜원·성정혜·이상호·배윤진 (2012). 대학생의 정서적 신뢰도 및 갈등 대처방식과 이성교제 만족도와 의 관계, **한국부모교육연구**, 9(2), 53-75.
- 문선모(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경상대 논문집** 19, 195-204.
- 민승기(2019). 대인 관계? 대인 관계!. 나비의 활주로.
- 박은혜·배소연·이정옥·임승렬·조부경·조운주·조형숙·황보영란(2002). 유아 교사 교육의 최근 연구동향.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경애(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아시아계 어머니가 양육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국부모교육연구**, 7(1), 23-44.
- 박세경·고강호(2014). 대학생의 인성교육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부모교육연구**, 11(1), 35-50.
- 변은경·장경오(2015).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6), 3982-3990.
- 손희주·임나의·오수현·박혜빈·김경민·김지현·정금비·윤현서·이정화(2018). 일부 대학생의 SNS 사용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관련성.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5), 811-821.
- 이기연·홍상욱(201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모교육연구**, 11(1), 79-104.
- 전혜성·홍구표(2017). 대학생의 SNS 이용특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30(1), 41-47.
- 홍구표·전혜성(2017).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1), 34-6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9).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계청(2019). 2018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웹사이트(<http://kostat.go.kr>)에서 8월 1일 인출.
- Andreassen CS, Torsheim T, Pallesen S.(2014). Predictors of use of social network sites at work—a specific type of cyber loafing. *J Comput Mediat Commun.* 19, 906 - 927.
- Ashton T., Webb R. B., & Doda N.(1983). A study of teachers' sense of efficac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31833.

- Barker, V.(2009). Older adolescents' motivations for social network site use: The influence of gender, group identity and collective self-esteem.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2(2), 209-213.
- Ellison, N. B, Steinfield, C., & Lampe, C.(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43 - 1168.
- Guerney, B. G., Jr.(1994). Relationship Enhancement audio program[Audio cassettes]. Rockville, MD: IDEALS.
- Leary, T.(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 Riordan G. & Costa J. L.(1996). *Teacher efficacy and the capacity to trust*. A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1996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Y: New York.
- Sullivan, G. S.(1956). Clinical studies in psychiatry. New York: Norton. Poldrack (Eds.), Neuro economics: Decision making and the brain, 251-26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Abstract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NS Addiction Tenden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Lee, So-Hyun* · Mo, A-Ra** · Lee, Eun-Jung*** · Ahn, Eun-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NS addiction tenden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students attending the children's department, the infant education department, and the child welfare department located in Gyeonggi-do.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NS addiction tendency was analyzed after checking the degre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NS addiction tendency through the collected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averag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 was 3.71(SD=0.41). Among the sub-factors, the average of comprehension was the highest, followed by friendliness, sensitivity, openness, communication, trust and satisfaction. Second, the overall averag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NS addiction tendency was 2.08(SD=0.51). Among the sub-factors, the average of immersion and resistance was the highest, followed by adjustment failure and daily disability, avoidance of negativity, virtual world orientation and withdrawal. Third, the overall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NS addiction tenden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Looking at the sub-factories, only sensitivity, a sub-factor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turned out to be an incidental correlation to SNS addiction tendency, but all other things turned out to be static correlations.

Key Words :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SNS Addiction Tendency

* Assistant Professor, Daegu Catholic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Yeonsu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 Kyungdong University

**** Chief of Center, Seoul Gwangjin Support Center For Childcare